

정태우 아내 장인희, 눈물 '알각'...왜?

등록 2022.11.12 20:45:00



[서울=뉴시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2022.11.12. (사진 = KBS 2TV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진 기자 = 배우 정태우가 대학로 데이트에서 아내 장인희를 감동시킨다.

12일 오후 9시20분 방송되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정태우는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게 된 아내 장인희와 과거 추억 물품들을 살펴봤다. 정태우가 보관하던 편지를 읽던 장인희는 눈물을 알각 쏟았고 뒤이어 정태우마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애써 삼킨다.

정태우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날씨가 서늘해지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연애 시절을 되새기던 정태우는 어머니께 둘째 하린이를 부탁한 뒤 장인희와 함께 대학로로 데이트를 떠났다.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게 된 부부는 정태우가 대학로 연극 시절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을 찾아 신혼의 달달한 추억을 나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쓴 하린이를 데리고 대학로에 오면서 둘만의 데이트를 꿈꾸던 정태우의 달달한 계획은 차질을 빚는다.

제작진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정태우는 커피를 사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장인희만 홀로 놔두고 사라졌다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깜짝 등장했다"면서 "과연 사랑꾼 정태우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무엇일지 방송을 지켜봐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elemovi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